

## 중국어 전사 한글 표기와 키보드의 표준 방안

김국<sup>0</sup>, 김하림, 박호범  
서경대학교, 조선대학교, 지피전자  
kimkuk99@daum.net

### Korean Keyboard Standard for Koreanization of Chinese

Kuk Kim<sup>0</sup>, HaLim Kim, HoBeom Park  
Seokyeong University, Chosen University, GP Electronic

#### 요 약

중국어(한어)를 라틴 알파벳으로 전사하는 음운표기 체계를 병음(拼音, Pinyin)이라고 하는데, 이에 비해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한글식의 중국어 전사 표기가 여러 가지가 연구되었다. 이는 한국어 및 한글 구사자에게 중국어를 학습하거나 중국문자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이 논문은 중국어 한글전사 표준과 이 용도의 키보드를 만드는 원칙을 연구한 것이다. 핵심은 중국어의 한글전사를 현대 한국어맞춤법을 따르도록 하고, 기존 표준키보드에 정합되게 한다.

주제어: 중국어, 병음, 한글, 전사표기, 키보드, 표준

#### 1. 서론

중국에서 한자의 표준발음을 라틴 알파벳으로 전사하는 공식 음운표기법을 병음(拼音, Pinyin) 또는 한어병음(Hanyu Pinyin)이라고 한다. 타이완은 주음부호라는 방식이 있는데, 중국어 발음 원리에 더 적합하다고 하지만 세계적으로 병음이 더 잘 알려져 있다. 보통화, 즉 표준 중국어의 학습, 중국 고유명사의 표기, 중국문자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1]. 한어병음이 정립되기 전의 웨이드-자일스식 로마자표기법(Wade-Giles romanization)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병음체계는 중국표준이자, 국제표준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였다[2].

한편, 한국에서 중국어 한글표기는 공식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1986.1.7.에 공고한 "외래어표기법"중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립국어원의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다[3]. 이는 한국어의 음운 식별과 정서법에 따르는 것으로 한국어의 일부를 이루는 규칙이며 중국어 자체의 한글식 전사(transcription)이 아니다. 예를 들어 p와 f를 중국어에서 식별하지만 한국어에서는 식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둘다 "ㅍ"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병음처럼 중국어 식별 발음을 고스란히 한글(또는 한글식)로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표기법이 연구되고 제안되었다.

이 논문은 중국어 한글전사 표준과 이 용도의 키보드를 만드는 원칙을 연구한 것이다.

#### 2. 관련 연구

언어마다 식별하는 음소가 있다. 한국어의 경우 zoo와

Jew를 구분하지 못한다든지, f음이 없고 p음만 있다든지, 이중모음의 종류가 한정적이라든지 등이 예이다. 아랍어는 g, k, q (ㄱ, ㅋ, ㆁ)의 구분이 있고, p가 없고 f 음이 있다든지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외국어를 자국어에 사용하는 것은 자국어의 음운 식별과 정서법을 따르는 것으로서, 외국어 발음을 고유하게 식별하여 전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중국어를 한국어로 표기하여 중국어 학습용이라든지 중국문자의 컴퓨터 입력을 위한 전사표기법을 정하는 것은, 외래어표기법과는 비록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또한 다른 외국어별로 정의하기와 다를 수도 있다. 김국[4]은 세계적인 음운알파벳용으로서 확장된 한글형을 제안하였다. 이는 IPA 부호보다 더 단순화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어 한글전사(Koreanization of Chinese)'에 있어서, 과거의 다양한 형태의 예는 표 1.과 같다. 외래어 표기법은 참고로 넣었다. [ ]은 단독 발음을 나타낸다. 주음부호는 원래 세로쓰기용으로 오른쪽에 붙이며, 가로쓰기에서는 위에 붙인다. 세로쓰기할 때 "一(i)"는 가로쓰기할 때 "ㅣ"로 쓴다. 성모(聲母)는 자음과, 운모(韻母)는 모음(및 중성 발음)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주장자에 따라 음운에 대해 충분한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는 불충분한 결과이기도 하다.

과거 많은 중국어전사 형태가 다양한 생각과 주장으로 제안되었다. 이들은 현대 한국어 맞춤법으로 중국어 발음을 정확히 전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하였다. 최영애·김용욱 표기법은 순전히 현대 한국어맞춤법 만으로 표기하는 것인데, 성모를 한글 자음으로만 구분하기 어려울 때, 모음과 조합하여 식별한다. 예를 들어 "ㅈ, ㅉ, ㅊ"와 같은 식이다. 어떤

이 논문은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가 지원하는 ICT표준화포럼, 2015-S-29, "한국어 전사 한글 키보드 표준화 포럼"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표 1. 중국어 성모·운모의 한글 표기 예

병음	IPA	주음	외래어 표기법	최영애·김용옥	정원수	배재석	엄익상	반재원	유완선	김구룡	김석연	양창섭	박양춘
b	[p]	ㄅ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p	[p <sup>h</sup> ]	ㄆ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ㅍ
m	[m]	ㄇ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ㅁ
f	[f]	ㄈ	ㅍ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후
d	[t]	ㄊ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t	[t <sup>h</sup> ]	ㄊ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n	[n]	ㄋ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l	[l]	ㄌ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g	[k]	ㄍ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k	[k <sup>h</sup> ]	ㄎ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ㄱ
h	[x]	ㄏ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ㅎ
i	[ɿ]	ㄷ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ü	[ɿ <sup>h</sup> ]	ㄸ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ㅣ
x	[ɕ]	ㄷ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zh	[tʂ]	ㄷ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ch	[tʂ <sup>h</sup> ]	ㄷ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sh	[ʃ]	ㄷ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r	[ʒ, ʐ]	ㄷ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z	[ʈ]	ㄷ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c	[ʈ <sup>h</sup> ]	ㄷ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s	[ʂ]	ㄷ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ㅅ

  

병음	IPA	주음	외래어 표기법	최영애·김용옥	정원수	배재석	엄익상	반재원	유완선	김구룡	김석연
a	[ä]	ㄚ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o	[ɔ]	ㄛ	오	워	오	오	오	오어	오	오	오
e	[u.ɤ],[e],[v]	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ê	[ɛ],[e]	ㄝ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ai	[aɪ]	ㄞ	아이	아이	애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아이
ei	[eɪ]	ㄟ	에이	에이	에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ao	[ɑo]	ㄠ	아오	아오	와	아오	아오	아오	아오	와	아오
ou	[ou]	ㄡ	어우	어우	워/웁	어우	어우	어우	오어우	워	어우
an	[än]	ㄢ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en	[ən]	ㄣ	언	언	언	언	언	언	언	언	언
ang	[ɑŋ]	ㄤ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eng	[ɤŋ]	ㄥ	엥	엥	엥	엥	엥	엥	위	엥	엥
er	[ɑ]	ㄨ	얼	얼	얼	얼	얼	얼	얼	얼	얼
yi(-i)	[i]	ㅣ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ya(-ia)	[jä]	ㅣㄚ	야	이아	야	야/이아	이아	야	야	야	야
ye(-ie)	[jɛ]	ㅣㄝ	예	이에	예	이에	이에	예	이에	예	예
yao(-iao)	[jɑo]	ㅣㄠ	야오	야오	와	야오/이아오	야오	야오	야오	와	야오
you(-iu)	[jio]	ㅣㄡ	유	여우	워/유	여우/이어우	여우	유우	오여우	워	유
van(-ian)	[jɛn]	ㅣㄢ	옌	이엔	안	이엔	이엔	이엔	옌	옌	옌
yin(-in)	[jn]	ㅣㄣ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yang(-iang)	[jan]	ㅣㄤ	양	이양	양	양/이양	이양	이양	양	양	양
ying(-ing)	[jn]	ㅣㄥ	잉	잉	잉	잉	잉	잉	잉	잉	잉
wu(-u)	[u]	ㅜ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wa(-ua)	[uä]	ㅜㄚ	와	우아	와/와	와/우아	우아	와	와	와	와
wo(-uo)	[uo]	ㅜㄛ	워	우어	워	워/우오	우오	우어	워	워	워
wai(-uai)	[uäɪ]	ㅜㄞ	와이	와이	왜/왜	와이	와이	우아이	와이	와이	와이
wei(-ui)	[ueɪ]	ㅜㄟ	웨이	웨이	웨	웨이	웨이	우에이	웨이	웨이	웨이
wan(-uan)	[uän]	ㅜㄢ	완	우안	완	완/우안	우안	우안	완	완	완
wen(-un)	[uən]	ㅜㄣ	웬	운	웬	웬	웬	웬	웬	웬	웬
wang(-uang)	[uan]	ㅜㄤ	왕	우앙	왕/왕	왕	우앙	왕	왕	왕	왕
weng(-ong)	[uɤŋ],[oŋ]	ㅜㄥ	웡	웡	웡/웡	웡	웡	웡(오웡)	웡	웡	웡
yu(-ü,u)	[y]	ㅠ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위
yue(-üe,ue)	[yɛ]	ㅠㄝ	웨이	위예	웨이	위예	위예	웨이	웨이	웨이	웨이
yuan(-üan)	[yen]	ㅠㄢ	위안	위안	웬	위엔	위안	위엔	위엔	웬	웬
yun(-ün)	[yn]	ㅠㄣ	윈	윈	윈	윈	윈	윈	윈	윈	윈
yong(-iong)	[yɤŋ],[joŋ]	ㅠㄥ	웡	이웡	웡	웡	이웡	웡	웡	웡	웡

주장자는 예를 들어 z를 △로 표기하거나, o를 나란히 써서 표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z를 유성음으로 오인한 경우이다. 중국어 초성은 m, n, l, r만 유성음이다. 표 1.의 IPA에서 보듯 b, d, g, j, z는 무성음으로서 영어와는 다르다. 한글식 표기에서도 이런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어의 발음과 유사한 면이 있다. 즉 한국어도 ㄱ, ㄷ, ㅂ, ㅈ은 원래 무성음이다.

i 앞에 z, c, s, zh, ch, sh, r이 붙을 때는 “오[i, u]” 발음이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i”로 표시하기도 한다. e는 [ɿ](어), ê는 [e](에) 음에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병음에서 ê를 구별해서 표기하지 않고 다른 성모와의 관계로 식별한다.

y는 i, ü에 초성이 없을 때, w는 u에 초성이 없을 때 붙여주는데, 예를 들어 “fanguan”은 “fan-guan”이지 만 “fangwan”은 “fang-wan”이다. 음절구분자는 아포스트로피를 사용하는데, 이는 Xi'an(西安)대 xian(先)과 같이, a, e, o 앞에서만 사용된다. 몇 가지 운모는 w/u나 y/i 앞에 자음이 붙을 때, you → -iu, wen → -un, wei → -ui, weng → -ong와 같이 생략된다. weng [uɤŋ]은 성모 뒤에서는 -ong로 쓰고 [oŋ]로 발음된다. 병음은 이 발음의 차이를 반영해서 구별한다. 따라서 성모가 붙은 -ueng는 없고, 영성모의 ong도 없다.

ü가 j, q, x, y 뒤에 올 때, 두 점을 생략하여 u로 표기한다. ju와 jü 두 가지의 구분이 없기 때문이다. ü가

표기되는 음절은 n, l 뿐이다. 그러나 외국 간행물에서는 생략되기도 한다.

성모·운모 조합은 모두 조합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gi, ki, hi, buo, puo, muo, fuo 등은 없다. 가능한 조합은 404가지이다. an은 i, ü 뒤에서 [ɛn]으로 발음된다(움라웃 현상).

영성모일 때 wei는 성모있을 때 -ui이다. 이를 한 가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한국어의 기는 단모음도 있고(귀), 중모음(귀)도 있다. 한편 병음에는 단모음 nü(뉴)는 있지만, 중모음 nü(뉴)는 없다. 또 한국어의 “와”는 ua의 발음이다. 이러한 점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런 배경 하에서, 미래창조과학부(전담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는 2015년 ‘중국어 전사 한글 키보드 표준화 포럼(의장 김국)’을 통해 중국어의 한글전사 표준과 키보드 표준화를 꾀하고 있다.

### 3. 중국어 한글전사 표기의 접근법

한글은 문자적으로 초, 중, 종성이 각각은 하나 또는 몇 개의 글자의 합자(ligature)로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ㄱ(←ㄱ+ㄱ), ㄴ(←ㄱ+ㅅ), ㄲ(←ㄱ+ㄲ) 등과 같다. 이것들이 또 음절 단위로 시각적으로 한 글자처럼, 즉 합자로 모아 쓴다. 한글맞춤법 상 합자꼴은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어 ㄱ+ㅅ=ㅆ는 있지만 ㄱ+ㄱ는 없다. 훈민정음 당시에는 더 많은 규칙들이 허용되었다. 예를 들어 ㅍ+ㅍ는 옛글자로 ‘ㅍ’이 가능하였다.

중국어의 한글 전사의 문제점은 위와 같이 자음, 모음의 합자꼴에 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 문제점은 음소의 인식이 다른 점이다. 한국어는 예를 들어 j, zh, z를 구분하여 발음하지 않고, r과 l을 구분하지 않고, f음은 사용하지 않는 등이다.

다른 문제점은 현대한국어 맞춤법 상, 한국어의 음절 표기와 중국어의 음절(1 한자)과 대응시키기 어렵다는 점이다.

접근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현대 한글맞춤법을 사용하는 방법, 2) 옛한글(훈민정음) 및 표기법을 활용하는 방법.

앞서 말한 포럼에서는 1)의 방법으로 접근한다. 최영애·김용옥 표기법과 엄상익 표기법을 개선하는 것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연구는 한글을 사용하여 중국어 전사 표준 규칙을 찾는 것이다.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어 정서법을 고려하여 표준의 원칙을 연구한다.

- 1) 가급적 현대 한글맞춤법을 따르도록 한다.
- 2) 가급적 외래어표기법과 유사하게 따르도록 한다.
- 3) 유니코드의 한글 영역을 사용한다.
- 4) 가급적 음절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 5) 가급적 중국어의 음소 식별을 따르도록 한다.

현대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 성모, 운모 별 고유하게 식별되는 한글 표기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p, f) 따라

서 최영애·김용옥 표기법의 예와 같이 성모+운모의 조합에 대한 고유의 전사표기를 수립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 pa=파, fa=화, hua=후아)

### 4. 중국어 한글전사 표기용 키보드의 접근법

기존 연구자 중에는 안마태나 김상근 등과 같이 중국어 전사표기용의 키보드를 표준과 다르게 설계(자판 배열)한 것도 있다. 그러나 포럼의 원칙은 아래와 같다.

- 1) 표준 한글키보드와 정합성이 있도록 한다.
- 2) 구분키는 중국어입력기와 같게 아포스트로피 사용
- 3) 중국어 전사모드용 핫키는 ‘한영’ 키+기능키
- 4) 성조 표시용 부호는 윗글자자리 한쪽에 집중 배열

### 5. 결론

중국어의 한글식으로 전사 표기하는 것은 한국어 사용자에게 중국어 학습과 중국어 컴퓨터 입력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목적의 포럼이 구성되었다. 이 논문은 전사 표기의 접근법에 대한 원칙들을 제안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현대 한글맞춤법을 따르도록 하였다. 옛글자를 사용하는 것은 다른 트랙이 될 것이다. 이 목적의 키보드는 표준 키보드와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향후 구체적인 중국어전사 표준 규칙을 개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1] <http://en.wikipedia.org/wiki/Pinyin> (2015.6.30).
- [2] 문화체육관광부 (1986. 1. 7.): “외래어표기법”, 공시 제85-11. (국립국어원, 외래어표기법, [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234&mn\\_id=114](http://www.korean.go.kr/front/page/pageView.do?page_id=P000234&mn_id=114))
- [3] ISO 7098 (1982), Documentation - Romanization of Chinese.
- [4] 김국 (2012), “정보화 시대의 진전에서 세계문자를 위한 한글 확장 표기,” 한국어정보학, 14(1), 17-30.